

# 현대 도예의 전사기법을 활용한 융복합 표현에 관한 연구

박경주\*, 최정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

## A Study on Convergence Expression Using Transfer Printing Techniques in Contemporary Ceramic Art

Koung-Ju Park\*, Jung-Hwa Choi\*\*

Prof. Ceramic Arts, Hongik University\*

Instructor Formative Arts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현대 도자예술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현대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전사기법이 발전하게 되었고 전사기법은 현대도예의 표현매체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사기법은 단순히 획일적이며 대량생산을 위한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에 비해 소공예 작가들이 전사기법을 활용해 그들의 작품에 응용할 예술적, 이론적인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사기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가의 개성과 예술성을 전사기법으로 표현한 현대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해 봄으로써 전사기법이 현대도예의 표현 매체로 도자공예의 미적 예술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사, 융복합, 피에로 포르나세티, 하워드 코틀러, 마렉 세쿨라

**Abstract** Modern ceramics art has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Among them, the digitization of modern societ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and the technique of transfer printing has been utilized as medium of expression of modern ceramics. However,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is merely uniform and does not give enough information to utilize the artistic expression of the craftsmen using the technique of decal rather than actively utilizing it in the field for mass produ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works of contemporary pottery artists wh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and express the artist 's personality and artistry with transfer printing technique, so that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can enhance the aesthetic and artistic effect of ceramic art as the expression medium of modern ceramics. We want to lay the foundations for a higher value-added industry.

**Key Words** : Transfer, Convergence, Piero Fornasetti, Howard Cottler, Mareck Cecula

### 1. 서론

#### 1.1 연구목적

도자는 식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쓰임새 있는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작가의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는 중요한 예술적 표

Received 25 February 2017, Revised 12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Jung-Hwa Choi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but011@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의 매체로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전용환은 “도자예술은 일류의 문명사와 더불어 인간의식을 집약해온 예술형식의 하나로서 20세기 들어와서는 현대도예라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1]. 또한 현대사회의 경제성장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삶의 급격한 변화 양상과 더불어 산업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2] 안료나 기법이 발전하였고, 특히 전사지와 디자인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형식에 머물렀던 도자장식의 한계를 넘어 도자 표면에 더욱 다양하고 섬세한 감각적이며 융복합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다[3]. 현대에 이르러 전사기법은 주로 산업도자 분야의 식기류와 도자 제품들에 도자예술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5]. 그에 따라 기본적인 유약의 색이나 전통적인 무늬 혹은 형태, 기법만으로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족하게 되고 작가들은 더욱 더 화려한 안료, 새로운 기법으로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위한 작업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도자예술의 새로운 표현인[6] 전사기법을 이용한 현대도예 작가들의 작품 중 작가의 의도와 의미를 잘 보여주면서 상업성과 예술성 혹은 소장가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품들을 고찰해 보며, 전사기법이 현대도예의 표현 매체로 활용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와 방법

196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현대도예 작가들의 전사지를 매개로한 전사기법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전사기법을 도자 접시에 활용한 현대도예 작가들의 작품들의 다양한 표현의 의미와 의도작가의 다양한 작업들 중 접시작업을 위주로 작품에 대한 의도와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피에로 포르나 세티(Piero Fornasetti), 하워드 코틀러(Howard Cottler), 멜로디 로즈(Melody Rose), 마렉 세쿨라(Marek Cecula),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5인의 작품에 대하여 관련 전시회 도록, 연구 논문,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 2. 본론

### 2.1 전사기법의 이해

전사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어 베킨다.”는 뜻이고 전사지는 하나의 그림을 똑같이 복제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게 인쇄된 종이를 말하는 것이다. 전사기법은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가구, 섬유 등의 표면에 도안, 그림 등을 붙이기에 쓰인 수법으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장식할 때 주로 사용한다. 박계혁은 “도자기의 전사는 ‘디자인을 도자기 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옮긴다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사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사지로 영어로는 데칼 (decal(decalcomania=장식)), 트랜스퍼 페이퍼 (transfer picture paper)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다[7].

도자 전사기법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디자인 공예운동 이후에 도자기 생산기술과 방법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그리고 [동판인쇄] → [석판인쇄] → [오프셋인쇄] → [실크스크린 인쇄] 순으로 발전하였으며 공근수는 작업방법과 인쇄방법에 따라 전사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8]<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transfer paper

work method	Over-glazes Decoration
	In-glaze Decoration
	Under-glazes Decoration
How to print	Copper printing
	Offset printing
	Silk screen printing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요업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외국의 제품을 본 따거나 변형하는 정도였다[9]. 하지만 최근의 전사지는 주로 실크스크린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지며,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인쇄 기법이 생겨 더욱더 섬세한 표현과 다채로운 컬러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쇄의 발달로 사진의 무한 복제와 변형이 용이하다는 점은 도자 공예를 탈 공예적이며 비 전통적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도예의 표현기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수잔 페터슨(Susan Peterson)은 저서에서 “도예가들에게 초현실적 시각효과를 탐구할 수 있는 실험적

표현기법이다.” 라고 하였다[10]. 이처럼 실크스크린 기법, 디지털인쇄 기법의 도입과 전사지의 발전으로 현대 도자분야에서 대량의 도자기를 빠르게 생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사기법은 상업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디자인개념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전사기법을 이용한 표현

전사기법을 이용한 현대도자의 표현형식은 전통기법에 새로운 장식기법의 표현으로 현대도예의 새로운 관점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우관호는 “전사는 디자인에 있어서 가는 선, 정확한 형태감과 동시에 복수제작을 빠른 시간내에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형태의 장식과 실용적인 용도를 창출하는데 각광받는 분야이다.”라고 하였다[11]. 이처럼 오늘날 도자의 전사기법은 단순히 상업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900년경에 미국의 상업예술가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인쇄기법인 실크 스크린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하나의 새로운 예술로 발달하게 되었다[12].

다음에 살펴볼 피에로 포르나세티를 비롯한 5명의 작가의 작품을 사례로 도자접시의 표현 매체로 전사기법의 형식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3.1 피에로 포르나세티(Piero Fornasetti)

피에로 포르나세티는 신고전주의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의 예술과 자신의 스타일을 담은 퓨전스타일의 작업을 하며 유티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고 매우 독창적인 스타일이다. 작품 Tema e Variazioni dinner plate. 2011. [Fig. 1]는 500가지가 넘는 여인의 얼굴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디자인의 변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흑, 백, 골드, 레드 의 최소한의 색으로 마치 모나리자를 보는 듯한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그의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의 깊이를 보여주며 초현실적인 구성의 인상적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13]. 작품 Tema e Variazioni, Piero Fornasetti, 2011. [Fig. 2]접시, 컵, 타일, 티팟, 캔들 등 유리, 테이블, 의자, 가구, 악세서리 등 전사기법을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사물에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는 전사기법을 통하여 3차원적인 형상에 2차원적 감각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효과의 예술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결국 예술성과 상업적인 목적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다.



[Fig. 1] Tema e Variazioni dinner plate, Piero Fornasetti, 2011



[Fig. 2] Tema e Variazioni, Piero Fornasetti, 2011

#### 3.2 하워드 코틀러(Howard Kottler)

하워드 코틀러는 전통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전사지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의 대표 작품은 American Gothic, 1972 [Fig. 3] 이며, 이작품은 전사지를 사용해 유머, 섹슈얼리티, 종교와 전쟁 등 정치적인 주제를 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시각적인 수수께끼를 보여주기 위해 전사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콜라주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송준규는 “과편화되고 분해된 구조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유머와 유티를 통해 이를 해학적으로 다루었다.” 라고 하였다[14]. 또한 Peace March, 1967. [Fig. 4]에서는 사회풍자나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표현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접시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도자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 표현을 제시해 주었다. 이처럼 대량생산된 접시에 표현한 전사 작업은 수공예적 참여의 부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점토에 관한 접근방식의 특수성을 보여주며, 산업제 또한 얼마든지 예술의 소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수공예로 제작한 작품만큼의 유효성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5]. 그리고 도자예술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표현력을 나타내는데 기여했고 도자예술이 도자재료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미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Fig. 3] American Gothic: Playmate Conditioner, Howard Kottler, 1972



[Fig. 4] Peace March, Howard Kottler, 1967

### 3.3 멜로디 로즈(Melody Rose)

멜로디 로즈는 골동품이나 빈티지 본차이나 위에 다시 전사와 도금을 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작업을 하였다. 원래의 빈티지적인 이미지 안에 현대적인 주제를 추가하여 빈티지 그릇에 새로운 감각을 부여한다. 그녀는 “작품 Urban Nature, 2011. [Fig. 5]은 독수리, 나비, 잠자리 등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도시와 자연을 나타내고, Modern SurRealist, 2011. [Fig. 6]은 초현실주의의 사랑에 대한 영감을 현대적으로 비틀어 표현한 현대 초현실주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Rock and Roll, 2011. [Fig. 7]은 멕시코의 ‘죽은자의 날’을 상징하는 소녀와 해골장식으로 표현하였다” 라고 하였다[16]. 이러한 세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들로 기존의 접시가 가지고 있는 장식성과 더불어 자신의 의도와 의미를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디자인의 접시가 모였을 때의 믹스매치는 멜로디 로즈만의 독특함의 표현이다.



[Fig. 7] Rock and Roll, Melody Ros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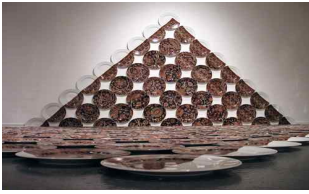
### 3.4 마렉 세쿨라(Marek Cecula)

마렉 세쿨라는 자신의 작품 Last Super, 2004, [Fig. 8]에서는 고전의 이미지를 전사지를 이용하여 접시위에 프린트 하고 그 접시들을 바닥에 나열하거나 겹침으로써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도자예술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접시위에 프린트된 기존의 이미지는 접시들이 나열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이미지처럼 보여진다. 재현된 카페의 이미지만 남김으로서 원본이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상징성을 상실하고자하였다.

또한 자기 카펫 The Porcelain, 2002. [Fig. 9]에서 작품 전면을 덮고 있는 이슬람스타일의 카펫은 카펫이 담고 있는 공예적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카펫의 경우 대량생산된 접시와 전사를 이용하게 되면서 카펫만의 수공예적 이미지가 상실되어 분절되고 파편화된 이미지는 고스란히 접시위에 남아있게 된다[17].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전통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을 상실 시키고자 원본이 가졌던 정보와 가치들을 제거한 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작가의 반 전통적, 반 공예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Fig. 8] Last Supper, Marek Cecula, 2004



[Fig. 9] The Porcelain Carpet, Marek Cecula, 2002

### 3.5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프랭크 스텔라는 추상표현주의를 모더니즘으로 돌리는데 기여하고 곧 이어 등장할 미니멀리즘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작가다. 그는 추상에서부터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각각의 개체로서의 개념을 강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 Untitled, 1997. [Fig. 10]은 그의 기존 동판 작업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다양한 컬러의 이미지를 접시에 전사기법을 이용하여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작품 Vortex Engraving Plates, 2000. [Fig. 11]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소용돌이의 형상을 하나의 색과 라인만을 사용하여 면을 형상화 시키는 이미지를 드로잉 한 후 도자 접시에 전사기법을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이것은 도자 접시 역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캔버스의 확장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표현한 전사기법은 작가의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과 전사지 작업이지만 한정판으로 출시함으로써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예술 작품으로써의 소장가치를 갖게 하였다.



[Fig. 10] Untitled, Frank Stella, 1997



[Fig. 11] Vortex Engraving Plates, Frank Stella, 2000

## 4. 결론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도자예술의 새로운

표현들로 전사기법을 도자 접시에 활용한 현대도에 작가들의 작품들의 다양한 표현의 의미와 의도를 고찰해 보았다. 도자기의 표면에 장식하는 기법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실크스크린의 발달로 인해 도자기에 전사지가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과 다양하고 섬세한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실크스크린과 전사기법이 점차 발전하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도자기에 전사기법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도에 작가 5명의 접시작품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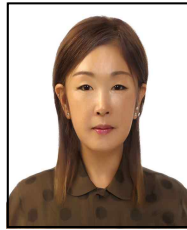
5명의 작가들은 도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쓰임새 있는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고 작가의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는 다양한 표현의 매체로 전사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이미지의 상징성을 작품에 보여주었고, 다변화하는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 적합한 표현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즉 획일적인 무늬나 패턴이 아닌 작가의 창의적인 표현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업들이다. 그들의 섬세한 표현, 선명한 색상과 디자인의 예술적 표현은 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된다. 전사기법은 현대도에의 표현매체로서 전통적 도자의 기법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의 소장가치도 느낄 수 있는 복합적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사기법은 단순히 대량생산 적이며 획일화된 패턴위주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통기법에 새로운 장식기법을 활용한 현대도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도자공예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사기법에 대한 이론적, 예술적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성과 예술성 있는 전사기법 개발을 위해 연구 노력한다면 전사기법은 감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매체로써 미학을 지향하는 21세기 도자공예의 내적, 기능적, 미적, 예술적 효과를 더욱 더 높힐 수 있을 것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 REFERENCES

- [1] Y. H. Cheon, "A study on Unfired Clay Work in Modern Ceramic Arts." p.1, 2002.
- [2] T. H. Lee, "A Study of Trend of Pop Culture in Digital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 15, No. 2, pp.301-307, 2017, 2.
- [3] S. M. Kim, "The Enable policy research on ceramic cult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05-310. 2012, 9.
- [4] T. S. Kim, "Industrial ceramic and design", Monthly Ceramic Art, pp.10-13, 1999, 3.
- [5] I. S. Mo, "The Material and design of third firing til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December Vol. 25, 2000, 12.
- [6] J. S. Hong, "A study on photography images in the contemporary ceramics as the strategy of avant-garde: focus on the confrontational cera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2013.
- [7] G. H. Park, "Chemical technology of pottery tableware", The Study of Ceramic, Vol. 25, No. 1, pp.26-27, 1995.
- [8] K. S. Kong, "A study of Transfer Printing Technique", Study of ceramic art, Vol. 0, No. 18, pp. 11-12, 1996.
- [9] J. H. Seo, "The Study of Industrial Ceramics and Tableware Design -Pivot of manufacturing morning Set Outside Decor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pp.17-18, 2003.
- [10] Peterson, Susan, "The craft and art of clay", Kim Soon bea, Yekyong, p.125, 2001.
- [11] K. H. Woo, E. J. Yoo, "A Study on the Transfer Printing Technique in Contemporary Ceramic Art's Expression Medium", A Korea Society of Art & Design, Vol. 18, No. 4, pp.413-429, 2015.
- [12] Termimi, Maria T, "Silk screening", Mijinsa, pp. 14-16, 1996.
- [13] Fornasetti-Practical Madness, p.48, 2016.
- [14] J. G. Song, "A Study on the Howard Kottler's Post-modern Ceramics",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16, No. 2, p.227, 2015.
- [15]DOI:<https://craftcouncil.org/post/howard-kottlers-p-lates-and-politics>, (Dec 27, 2012)
- [16]DOI:<http://homegirllondon.com/profiles-melody-rose/#/> (Oct 25, 2014)
- [17]DOI:[http://www.cerazine.co.kr/CeramicArt/News\\_View.asp?News\\_Num=24764&Class\\_Num=274](http://www.cerazine.co.kr/CeramicArt/News_View.asp?News_Num=24764&Class_Num=274)(July, 2013)

박 경 주(Park, Koung Ju)



- 1983년 2월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도예전공(학사)
- 1986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산업공예과(석사)
- 1991년 2월 : 뉴욕대학교 대학원 스튜디오아트 전공(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도예전공(미술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교수
- 관심분야 : 현대 도예, 조형
- E-Mail : jjoo1004@hotmail.com

최 정 화(Choi, Jung Hwa)



- 2005년 2월 :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학사)
- 2016년 8월 :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 대학원 도예유리디자인(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디자인
- E-Mail : but011@naver.com